

2018년 3월 20일, 표선면 세화2리 세화2리경로당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
김세현(남, 1936년생, 표선면 세화2리)

- 줄거리: 넉오름코지에 도깨비가 자주 출몰하는데 이 도깨비의 생김새를 보면 상체는 있고 하체는 없다.

[조사자] 이 동네 귀신 나오는 디 엇우과?

[제보자] 도체비. 그렇게 나와낫는디 요즘엔 전깃불 나고 하난 다 엊어져 불엇어.

[조사자] 어디 경 하영 납니까?

[제보자] 여기 망오름이 잇어. 망오름으로 도체비가 나면 불이 이마니한 거 벌겋게 나와그 냉 저 표선 넉오름코지라고 잇어. 거기 배 뿐서져나니까 거기강 딱 엊어져불어. 거기서 도체비가 나왕 딱 엊어져 불고.

[조사자] 도체비 보면 어떻 헌덴 헤마씀?

[제보자] 쌀 쎈 사람은 싹 엊어져 불고. 어떤 사람이 쌀 췌느냐. 도체비 보민 눈물이 자륵하게 나고 머리카락이 와쓱한 사람은 쌀이 췌어. 그런 사람은 도체비한테.

[조사자] 안 홀린덴 허여?

[제보자] 안 홀린덴 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홀려. 우리는 보면 눈물이 자륵하게 홀려.

[조사자] 도체비도 사람 모양으로 생기는 거?

[제보자] 웃드레는 잇고 알레는 없어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넉오름코지, 웃드레(상체), 알레(하체), 망오름